

【어원 탐구 · 근대어】

‘열대 · 온대 · 냉대’의 출현

송 민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개화 초기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돌아본 이현영(李鎡永)은 당시의 한 지식인으로 보이는 인물 나카다 타케오(中田武雄)한테서 글 한 편을 받는다. 『일사집략』(日槎集略, 1881)에 채록된 그 글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서로 장난치며 말하기를 러시아 땅과 영국 영토의 넓고 좁기가 어떠하며, 미국 그림과 프랑스 글의 교묘함과 치졸함이 어떠하고, 어떤 땅은 북위 몇 도에 있으며, 어떤 부는 한대지경에 가깝다고 합니다 (兒童相戲言曰 魯地與英領 廣狹如何 米畫與佛書 巧拙如何 某地在北緯幾度 某府近寒帶之境(卷之人 散錄 中田武雄書).)

이 때의 ‘한대지경(寒帶之境)’이란 ‘한대지방’, 곧 ‘한대(寒帶)’와 같은 말로서 ‘열대(熱帶)’나 ‘온대(溫帶)’와는 대립을 이루는 지리학 용어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나 이현영은 ‘한대지경(寒帶之境)’을 단순히 ‘추운 지대에 걸쳐 있는 땅’ 정도로 이해했을 뿐, 지리학의 전문 용어로는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을 쓴 일본인 나카다 또한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썼는지는 알 길이 없

으나, 당시에는 이들 지리학 용어가 일본어에 정착되어 있었다. 다음과 같은 사전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atow/Ishibashi(초판 1876, 개정판 1879): Tropic, n. —s (the zone), *nettai** (c). **nettai*=‘熱帶’

尺振八(1884): Tropic, (名) 回歸線(天。地)○(複)熱帶(地)二地線(天。地), Tropic, Tropical, (形) 二地線ノ。熱帶ノ。熱帶地方ノ, Temperate zone. 溫帶(地), Frigid zone. 寒帶(極ト極圈トノ間ニアル地)。

柵柵橋一(1885): Tropic, s. 熱帶。二至規, Tropical, a. 譬喩ノ。熱帶間ニ在ル。熱帶ノ

다만, ‘열대, 온대, 한대’는 영일(英日) 대역(對譯) 사전류에만 나타날 뿐, 일영(日英) 대역사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가령, Hepburn의 『화영어림집성(和英語林集成, 초판 1867, 개정증보판 1872)의 경우, 그 3판(1886)에도 이들 어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다른 문헌에 의하면 이들 단어는 당시의 일본어에 분명히 확립되어 있었는데도, Hepburn(1886)과 같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원인은 이들이 지리학 용어여서 일상의 일본어에서는 별로 쓰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의 국어에는 ‘열대, 온대, 한대’가 정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불증언』(1880)에는 그러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1890년대에 들어서면 이들 단어가 국어에 한꺼번에 나타난다.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 1895)에는 이들 세 단어가 모두 한자어로 나타나며(이한섭 외, 2000), 그 후의 『한영증언』(1897)에도 다음과 같은 표제어로 나타나는 것이다.

열터 s. 熱帶 The Equator.

온터 s. 溫帶 The tropics; the temperate zones.

한터 s. 寒帶 The polar circles; the polar zones.

지금 같으면 영어의 equator는 ‘적도(赤道)’, tropics는 ‘열대’에 대응되는 말이지만, 게일(Gale, J. S.)은 ‘열티’를 equator, ‘온티’를 tropics로 풀이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게일은 ‘열티, 온티, 한티’를 국어 단어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에는 이들 단어가 국어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들은 신생 한자어에 속한다. 요컨대, 『서유견문』이나 『한영조번』은 ‘열티, 온티, 한티’라는 단어가 국어에 정착된 시기를 알려 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 지리학 용어의 계보가 궁금해진다. 이들 용어의 성립 과정이나 일본어에 정착된 과정에 대해서는 아라카와 키요히데(荒川清秀, 1997)에 상세한 고증이 나타난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필자 또한 국어에 정착된 이들 단어에 대하여 약간의 논의를 펼친 적이 있으나(宋敏, 1998:27-29), 미흡함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약간의 새로운 근거를 보태어 재론하기로 한다.

우선, 이들 세 가지 용어 중 ‘열대(熱帶)’라는 어형만은 그동안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澤, 1720-1803)의 『관려비언』(管蠡秘言, 1777)에 최초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열대(熱帶)’는 일본어 기원의 신생 한자어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책에는 나머지 두 용어가 각기 ‘정대(正帶), 냉대(冷帶)’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열대, 정대, 냉대’라는 어형이 어디서 유래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결국 중국 문헌을 통하여 해결된다.

아라카와(1997)에 의하면 ‘열대, 정대, 냉대’라는 지리학 용어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문헌은 남회인(南懷仁, F. Verbiest, 1623-1688)의 『곤여도설』(坤輿圖說, 1674)이라고 한다. 이로써 마에노 료타쿠는 일단 남회인의 용어를 그대로 계승하여 썼다고 볼 수 있다(荒川清秀 1997:33 이하). 그러나 남회인과 마에노가 함께 사용한 용어 중 ‘열대(熱帶)’를 제외한 나머지 둘, 곧 ‘정대(正帶)’와 ‘냉대(冷帶)’는 오늘날 일본어나 국어의 ‘온대(溫帶), 한대(寒帶)’와는 그 어형이 사뭇 다르다. 여기에는 복잡한 역사적 과정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아라카와(1997:33-60)의 상세한 추론을 토대로 하여 게일의 『한영조번』(1897)에 나타나는 ‘열티, 온티, 한티’의 배경을 살피기로 한다.

우선, 남회인의 『곤여도설』에 ‘열대(熱帶), 냉대(冷帶)’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형은 명사형이 아니었다. ‘열대’와 ‘냉대’가 나타나는 원문은 각기 “차지심열대근일륜고야(此地甚熱帶近日輪故也)”와 “차이처지거심냉대원일륜고야(此二處地居甚冷帶遠日輪故也)”로 되어 있다. 이때의 ‘열대’와 ‘냉대’를 명사형으로 해석하려면 원문을 각기 “此地甚熱帶, 近日輪故也”와 “此二處地居甚冷帶, 遠日輪故也”처럼 띄어서 읽어야 하는데, 이러한 해독은 문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나타나는 ‘심(甚)’은 한정부사여서 형용사나 동사 앞에만 쓰일 수 있을 뿐, 명사 앞에는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원문에 대해서는 “此地甚熱, 帶近日輪故也”와 “此二處地居甚冷, 帶遠日輪故也”처럼 ‘熱’과 ‘帶’, ‘冷’과 ‘帶’를 각기 띄어서 읽어야 옳다. 다시 말해서 원문의 ‘熱’과 ‘帶’, ‘冷’과 ‘帶’는 통사 구조상 각기 별개의 구에 속하기 때문에 ‘熱帶, 冷帶’처럼 묶어서 명사형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오래 된 중국문헌에는 ‘열대, 온대, 냉대’가 다 같이 명사형으로 쓰인 사례가 있다. 애유략(艾儒略, G. Aleni, 1582-1649)의 『직방외기』(職方外紀, 1623)가 그것이다. 이 책에 나타나는 ‘열대, 온대, 냉대’는 분명한 명사형이지만, 이번에는 ‘온대(溫帶)’라는 어형이 문제다. 남회인의 『곤여도설』이나 마에노의 『관려비언』에 쓰인 ‘정대(正帶)’와는 그 어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곤여도설』이나 『관려비언』은 『직방외기』가 아닌 다른 계통의 용어를 이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곧 이마두(利瑪竇, M. Ricci, 1552-1610)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1602)였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책에 ‘열대, 정대, 냉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문제는 ‘열대’와 ‘냉대’가 명사형이 아니라, 『곤여도설』과 똑같은 구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마두의 그 후 저술 『건곤체의(乾坤體義, ?1605)』에는 ‘열대(熱帶), 정대(正帶), 한대(寒帶)’가 명사형으로 쓰이기도 하였다고 한다(荒川清秀 1997:44). 이상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문헌〉 利瑪竇, 『坤輿萬國全圖』(1602) -熱帶- -正帶- -冷帶-
 利瑪竇, 『乾坤體義』(1605) -熱帶- -正帶- -寒帶-

艾儒略, 『職方外紀』(1623)	-熱帶	-溫帶	-冷帶
南懷仁, 『坤輿圖說』(1674)	-熱帶	-正帶	-冷帶
(일본 문헌) 前野良澤, 『管蠡秘言』(1777)	-熱帶	-正帶	-冷帶

이로써 이들 상호간의 역사적 계보는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애유략(1623)은 리마두(1602)의 통사적 기술을 명사형으로 정비하여 균형이 잡힌 용어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대(正帶)’라는 용어를 ‘열대(熱帶), 냉대(冷帶)’와 대비가 되도록 ‘온대(溫帶)’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남회인(1674)은 잘 정비된 애유략(1623)의 용어 대신 정비가 덜된 이마두(1602)의 표현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남회인(1674)이 이마두(?1605)를 이어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책의 ‘냉대’ 자리에 이마두(?1605)는 ‘한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에노(1777)는 애유략(1623)이 아닌 이마두(1602)나 남회인(1674) 계통의 자료를 이어 받으면서 그 표현만은 명사형으로 정비했다는 결론이 된다.

문제는 이들 중국 문헌이 금서(禁書) 시기의 일본에 어떻게 유입되어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荒川清秀, 1997:38). 그런데도 문제는 남아 있다. ‘열대(熱帶)’나 ‘온대(溫帶)’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초의 ‘냉대(冷帶)’는 어떻게 ‘한대(寒帶)’로 대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18세기 말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한대’는 19세기를 통하여 일본어 단어로 확실히 굳어졌다고 한다(荒川清秀, 1997:50-51).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어형 또한 이마두의 『건곤체외』(?1605)에 이미 명사형으로 쓰인 바 있으므로, 그 기원은 17세기 초의 중국 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그런데, ‘열대, 온대, 한대’가 그 후의 중국어에 직접 계승되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어에서는 20세기 초엽까지 ‘한대(寒帶)’와 ‘한도(寒道)’는 물론, ‘열대(熱帶)’와 ‘열도(熱道)’, ‘온대(溫帶)’와 ‘온도(溫道)’, 곧 ‘-대(帶)’계와 ‘-도(道)’계가 공존하면서 꾸준한 경합을 계속한 바 있다(荒川清秀

1997:49-60)는 사실 때문이다.

참고로, 유정담(劉正埰 외, 1984)에서는 중국어의 ‘[rèdài](熱帶)’와 ‘[hàndài](寒帶)’를 일본어에서 기원한 어형으로 보고 있으나, ‘온대(溫帶)’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하여, 황하청(黃河淸 역, 1997=Masini, F., 1993)에서는 ‘[redai](熱帶)’를 “1602년 리마두가 창조한 신어(利瑪竇所創造新詞)”로, ‘[wendai](溫帶)’를 “1623년 애유략이 이 신어를 창조하였다(艾儒略創造了這個新詞)”고 풀이하고 있으나, ‘한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느 쪽에도 세 가지 단어가 함께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기원에 대한 견해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어의 경우 이들 어휘가 17세기에 이루어진 외국인 선교사의 저술에서 직접 계승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견해상의 차이일 뿐이어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한불즈던』(1880)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서유견문』(1895)이나 『한영즈던』(1897)에 잇달아 출현하는 국어의 ‘열대, 온대, 한대’라는 신생 한자어는 일본어 쪽에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유견문』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전의 논의에서 지적한 대로 『한영즈던』에는 일본어의 영향이 분명히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전번 호까지 이미 제시한 문헌은 생략함.

宋 敏(1998). 「開化期 新生漢字語彙의 系譜」. 國民大 語文學研究所.
『語文學論叢』 17.